

경력단절 강사는 취업... 시민은 무료 수강 기회

군산시, 내달 11일~5월 3일 평생학습관 재능기부 프로젝트

영어 회화·약초 등 수강생 모집... 인기 강좌는 정규편성 방침

군산시가 경력단절 강사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25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평생학습관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 무료강좌 프로그램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3월 11일 첫 강좌를 시작해 오는 5월 3

일까지 이번 프로젝트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강좌는 기본상식부터 전문영역까지 다양한 평생학습 분야는 물론 인문 관련 프로그램, 외국어 및 역사 교육 프로그램, 취미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인문 관련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변혁의 시대를 대비해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할

▲하브루타 부모교실, UN이 인정한 세계 인성 프로그램 ▲인성프로그램인 '비추프로젝트' 등이다. 외국어 및 역사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현지 경험을 토대로 한 ▲실용 영어회화 ▲영상을 통해 배우는 중국 문화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 강좌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문화생활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재활용품 활용한 퀼트 생활용품 ▲인물 스케치 ▲책 읽어 주기와 독서 코치 ▲약초 강좌 등 취미 관련 강좌도 개설했다.

시는 이번엔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강좌 평가

가 우수하거나 시민의 호응이 높은 강좌를 정규 강좌로 편성할 방침이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https://lll.gunsan.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경력단절 강사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무료로 수강하는 기회가 확대돼 재능기부로 사회에 환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순창 홍문재 어암관 건립 '속도'

김상렬씨, 건립부지 6600㎡ 기부

순창군이 훈문재 어암관 부지를 확보해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순창군에 따르면 쌍치면 출신의 김상렬(84)씨가 어암관 건립부지 6600㎡의 기부채납 신청서를 황속주 군수에 게 최근 전달했다.

김씨는 유학자 김인후(1510~1560년) 선생의 14대손이다.

훈문재는 김인후 선생이 순창 쌍치에 지은 강학당을 2009년 중건해 예절과 유학 교육장으로 활용된다.

훈문재는 호남지역 유학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옆에 건립하는 어암관은 김인후 선생의 사상과 유학 후학을 양성하는 곳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팜팜 시골버스' 타고 관광지로

고창군, 4월 6일~11월 매주 토·일 운행

고창군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을 버스로 둘러보는 '팜팜시골버스'가 오는 4월 6일부터 운행된다.

팜팜시골버스는 운곡삼사르스지, 고창읍성, 고인돌 유적지 등의 관광지를 기본 코스로 하며 청보리밭축제, 모양성축제와 같은 행사장도 찾아가는다.

복분자, 블루베리 등을 이용해 다양한 식품을 만들고 구마와 감자 등을 캐보는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운행한다.

토요일에는 익산역, 일요일에는 광주에서 출발한다.

문의는 고창농촌관광팜팜사업단(063-563-8804)으로 하면 된다.

한편 고창 팜팜시골버스는 지난해 36차례 운행해 고창의 농촌관광 농가인 팜팜스테이션과 팜팜농가의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주요 관광 명소를 더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화순군, 전용야구장 건립 논의

화순군은 지난 21일 야구장건립추진위원회를 열고 전용야구장 건립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야구장 건립과 운영계획, 주민 설명회와 중간 보고회 개최, 설계자문단 구성, 야구장 운영 관리 조례 제정 등을 논의했다.

군은 총 46억원(전남도교육청 23억·화순군 23억)을 투입, 화순군 이양면 옛 금능분교 부지에 1만8천㎡ 규모의 전용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야구장은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화순군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야구장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교육청이 공사를, 화순군이 운영을 맡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용야구장이 화순 초·중·고야구부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동호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완도 천혜자연 품은 방울토마토 출하요~



청정바다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은 완도 자연 그대로 방울토마토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완도 방울토마토는 2015년 '스마트'로 상표를 출원했다.

'빙그레 웃을 완(莞)'에 '섬 도(島)'를 쓰는 '빙그레 웃는 섬' 완도의 이미지를 뜻하는 스마일(Smile)과 토마토(Tomato) 합성어다.

스마트는 해풍을 맞고 자라며 유용미생물과 바이오 기능수를 사용해 식감이 좋다.

미네랄 함량과 당도가 높고 저장 기간도 길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완도군은 전했다. 스마트 재배면적은 군외면 일대 약 4.3ha로 연간 약 200t이 생산된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완도 스마트를 많이 찾아 달라"며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방울토마토 보관 시 썩지를 때어 내는 게 저장 기간의 상품성을 60%나 늘리는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다시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

장성군, 내달 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재현행사

장성군은 다음달 1일 장성공원을 장성역 일원에서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보훈가족, 학생, 사회단체, 기관 등이 참여한다.

오전 10시부터 3·1운동 열사 장성의적비(長城義勇碑) 참배를 시작으로 기념식, 만세 재현 등을 이어간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청소년 대표 4명의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에 이어 참석자 300여명이 만세삼창을 한다.

이후 모든 참가자가 장성공원을 출발해 장성역까지 500m 구간을 행진한다.

육군 상무대 군악대가 선두에서 호국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행사 당일 참석자 모두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장성읍과 삼계·황룡·북이면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가치를 일깨우자는 뜻으로 재현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 군민 태극기 달기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정읍시, 짝퉁 상품 퇴출 팔 건었다

상거래 부정경쟁행위 단속... 위조상품 판매업체 6곳 적발

정읍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는 전북도와 정읍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참여해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에서는 의류, 신발, 장신구 등 유명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6개 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했다.

시는 시정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정

권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재차 적발될 때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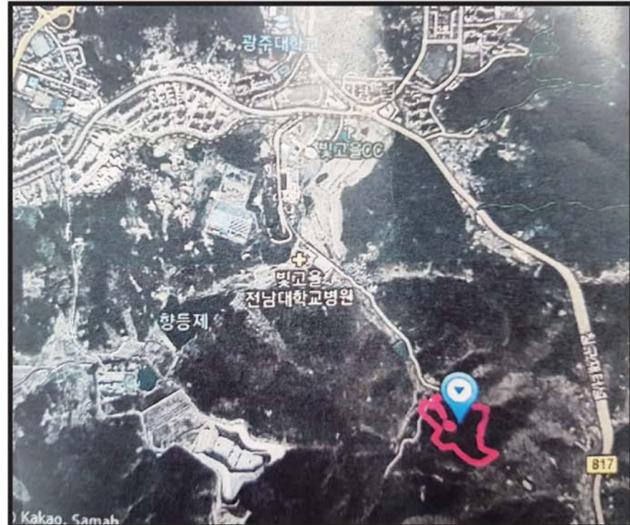
정읍시 관계자는 "특허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조 상품을 추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위조 상품 판매와 진열 금지 협조 안내 등 위조 상품을 추방하기 위한 홍보와 제도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주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공유지분 300평
- 전체 22600평중 일부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